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A→B)

최근들어 잘파세대 (Z 세대+알파세대) 들이 유명 인플루언서나 콘텐츠 등을 따라 물건, 식품 등을 구매하는 '디토'(Ditto)소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식음료 회사들이 이들의 디토소비를 겨냥해 유명인을 모델로 발탁하고 인기 캐릭터와 협업 제품을 출시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하는 새로운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디토소비는 이미 전 세계적인 소비 트렌드가 되고 있다. 숏폼 플랫폼인 틱톡(TicTok)에 영상을 찍어 올리는 '틱톡커' 사이에서 열풍을 끈 미국 보온병 업체 '스탠리'(Stanley) 텀블러가 대표적이다. 화재로 전소한 차량에서 열음이 녹지 않고 들어있는 스탠리 텀블러가 발견됐다는 영상이 틱톡에서 인기를 끌자 너나없이 이 텀블러를 구매하고 후기를 인증하는 숏폼을 찍기 시작했다 .

디토소비는 '마찬가지' '나도'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디토(Ditto)에서 파생된 용어로 인기 있는 인물이나 SNS 등의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말한다. 시류에 맞지 않더라도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에 맞는다면 돈 쓰는 것을 아끼지 않는 '가치소비'와는 다르다 .

유통 업계는 잘파세대 특성에 맞는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트렌드 중심지에 패션 및 뷰티 트렌드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게재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A→B)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B2B(기업간 거래) 플랫폼 1688 닷컴이 한국 시장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시장 직접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보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국내 소수 직구족에게 각광을 받던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어 서비스를 내고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으로 도약했기 때문이다. 이후 알리는 서비스 전개 과정에서 짝퉁 상품,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자 1 조원이 넘는 투자계획을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1688 닷컴도 현재는 일부 셀러(판매자)들이 쓰고 있지만 한국어 앱 등 전용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면 보다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1688 닷컴이 국내 중소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산 저가 상품이 곳곳에 깔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중소기업은 설 자리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초저가를 무기로 급속히 파고드는 알리바바그룹에 종속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A→B)

1997 년 말 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 이른바 '아나바다 운동'이 인기를 끌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를 줄인 말로, 어려운 경제를 일으키고자 벌인 절약 캠페인이었다. 중고 거래와 소규모 벼룩시장의 사회화는 그렇게 조금씩 몸집을 키워 갔다. 20 여 년이 지난 지금, 중고 거래 앱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얼마 전 나이키가 '한정판 모델'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운동화를 팔았다. 오전 10 시부터 딱 30 분 동안만 구매 신청을 받고 11 시 추첨, 이후 두 시간 동안만 당첨자를 대상으로 판매했다. 몇 족을 파는지, 몇 명이 당첨됐는지 모두 비공개였다. 15 만 원짜리 운동화가 25 만 원 안팎의 가격이 붙어 올라왔다. 이른바 '스니커테크'라고 하는 한정판 운동화 되팔기다.

이게 뭐냐 싶겠지만 모르는 말씀이다. 국내 스니커즈 되팔기 시장 규모는 연 5000 억 원으로 추산된다. 네이버가 지난해 자회사를 통해 한정판 모델 판매 플랫폼을 만들었고, 1 년 남짓 만에 누적 거래액이 2700 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나만의 개성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MZ 세대의 가치 추구가 기업의 교묘한 마케팅과 만나 특이한 중고 거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생활과 산업 형태의 진화야 끝이 없겠지만 자본 상술이 너무 깊숙이 끼어들어 좀 찝찝한 느낌이 든다.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A→B)

지난 몇 년 동안 끓어오르던 세계 지정학적 긴장감이 2022 년이 되자 본격적인 갈등으로 분출되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전략은 유라시아대륙이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다는 러시아의 세계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는 대서양을 중심으로 미국과 서유럽에 뻗어있는 '대서양주의' 세력이다. 대서양주의는 서구 근대문명,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을 상징한다. 반대편에는 러시아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주의' 세력이 있다. 유라시아주의는 문명의 오랜 전통, 집단주의, 권위주의를 지키고 있는 육상 세력들이 대서양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비전을 내세운다. 서유럽은 대서양과 유라시아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유일한 지역이 아니다.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한국까지 유라시아의 모든 국가는 '다시 갈라지는 세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둘러싼 논쟁에 직면해 있다. 한국에서는 지정학적 선택을 둘러싼 논쟁이 세대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노년층은 세계가 갈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는 원래 갈라져 있었다고 생각한다. 반면 중장년층은 두 세계의 갈라짐을 가장 우려하는 세대다. 그렇다면 새로운 유권자 집단으로 본격 등장한 이 땅의 청년층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단 드러난 것만 보자면 이들의 인식은 중장년층보다는 노년층과 더 친연성을 갖는 듯하다. 세대 간의 이러한 인식 격차는 2022 년 대통령선거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A→B)

한류는 이제 의식주 등 한국의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며 '글로벌 K 컬처'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 단계 높은 '선진문화대국'으로 도약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지역문화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AI, 데이터, 로봇산업 등으로 종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문명사적 대변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었던 세계화 흐름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엄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왕에 이룩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초일류 선진문화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인류 문명사에 큰 빛을 남기는 나라가 되려면 한국문화의 뿌리가 되는 지역문화가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강력한 외래문화 유입과 영향,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우리 지역문화의 위상은 날로 약화되고 있다. 특히 취약한 지역경제에 따라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대도시가 제공하는 질 좋은 교육과 문화를 즐길 수 없게 된 지역은 소멸위기에 몰렸으며, 지역문화와도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됐다.

향토문화의 복원과 재해석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 지역문화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주민은 물론 모든 문화향유자들의 동의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역문화는 민족문화를 풍성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세계문화와 직접 소통하면서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A→B)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나보다 잘할 것으로 예견된 존재가 나타났다.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의사 면허시험도 똑딱 합격하고, 아이비리그 MBA 입학시험도 통과한 문이과 통합형 인재인데, 심지어 체력도 좋아 노동시간의 구매도 받지 않는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솔루션 챗 GPT 의 등장에 환호보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더 크다. 두려움의 근원은 대체 가능성이다. 이 시대에 '대체 불가' 존재가 되는 것은 차별화 조건이 아닌 생존 조건이다.

라이프 스타일 슈퍼앱을 꿈꾸는 '오늘의 집'은 '취향을 공유하면 리워드를 받는 큐레이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큐레이터는 오늘의 집에서 판매 중인 제품 링크를 공유하고, 그로 발생한 수익의 수수료를 정산받는 방식이다. 이 같은 리워드 마케팅 프로그램은 '대체 불가'의 존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교훈을 시사한다. '나누는 마음' 즉 '정성'과 '고르는 안목'이 그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는 '정성'이 주목받고 보상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자산은 '고르는 안목'이다. 단, 경쟁자는 빅데이터다.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는 일은 데이터를 통해 인간보다 많이, 빨리, 깊이 할 수 있다. 알고리즘 기반의 최적화 추천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래서 더 귀해진다.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B→A)

파리五輪が開幕した。「広く開かれた大会に」のスローガンの下、夏季五輪で初めて開会式を競技場外で実施した。

セーヌ川を舞台にした船による選手入場や絢爛（けんらん）な演出は、芸術の都の創造性にあふれていた。パリでの五輪は100年ぶり3度目で、史上初めて出場枠の男女同数が実現した。世界中が多様性を認め合う時代へと歩みを進める大会となつてほしい。

現地ではテロへの警戒でも緊張が高まる。フランス国内で高速列車TGVの路線網に大規模な破壊行為が起きた。五輪の開会式には警察や憲兵隊約4万5千人が投入され、厳重な警備態勢が敷かれた。

派手なショーの裏側で報復や暴力の連鎖におびえる構図は、不安定さを増す世界情勢の縮図にも見える。

前回の東京五輪は世界的な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で1年の延期を余儀なくされ、原則無観客での開催となった。パリ五輪はコロナ禍から解放され、本来の華やかさを取り戻すであろう。

だが、この瞬間にも戦争や貧困下に置かれた人々がいる世界の現実を忘れてしまえば、五輪の熱狂は正義を欠いた“欺瞞”にも転じる。政治的アピールを狙ったテロを誘発しかねない。

五輪の成功とは国のメダル数や経済効果で測るものではなく、五輪憲章に掲げた平和な社会の実現だ。崇高な理念に五輪の存在意義があることを見失ってはいけない。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B→A)

英語の「バイブ (vibe)」には空気、雰囲気、心理といった意味がある。今の米国にあふれるのは、まさにこの言葉だ。

国民の景況感が経済の実態以上に悪く、リセッション（景気後退）と見まがう現象は「バイブセッション（心理不況）」と呼ばれてきた。バイデン大統領が11月の大統領選からの撤退を強いられたのは、現実とは異なる空気の不況に足をすくわれたせいでもある。

次は「バイブシフト（雰囲気の変化）」。ハリス副大統領は指導者としての力量に疑念を抱かれ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バイデン氏の後継候補に収まった途端に救世主と化した。個人の印象が公約に勝る空気に乗って、トランプ前大統領と接戦を演じる。

米国に限った話ではない。

現首相の全てが悪いと断じて刷新を迫った有権者。次の衆院選に勝ちたいがために、政策や実力を二の次にして人気候補を担ごうとする政治家。米国の「バイデン降ろし」や「ハリス推し」と似たような空気の広がりや、日本でも感じずにはいられない。

空気とは教育も議論もデータも、そしておそらく科学的解明も歯がたたない“何か”だ。まことに大きな絶対権をもった妖怪である。主要国で重要な選挙が相次ぐ今年。この妖怪がSNSの追い風も受け、より大きな力を振るい始めた。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B→A)

ウィリアム・テルの逸話のようにリンゴを頭に乘せた男に周囲から矢が放たれた。全身に矢を受けた男は平然と頭からリンゴを取り、かじりつく。そこにナレーション。「毎日1個のリンゴがあれば、誰も私をだませない」。

香港の「蘋果日報(りんご日報)」が1995年の創刊時に製作したテレビCMだ。自ら出演した創業者の反骨精神が表れている。雨傘運動や反中デモでは民主派支持の紙面を作り、中国と対立してきた。

香港の民主主義のリトマス紙ともいわれた同紙が24日付を最後に発行を停止した。昨年6月の香港国家安全維持法施行後に創業者や経営陣、編集幹部が逮捕された。法人の資産も凍結され、経営が困難な状況に追い込まれた。

軍事独裁体制を敷いたナポレオンは「敵対的な新聞は銃弾より危険だ」という言葉を残した。中国も同じ考えに違いない。「党のノドと舌」と位置づけられた中国メディアと異なり、同紙は共産党批判をためらわない危険な存在なのだ。

論調が異なる新聞や雑誌が並んだ街頭の新聞スタンドは、英植民地時代から続く香港の名物だった。それが一色に染まっては「1国2制度」などまやかしにすぎない。

廃刊を惜しむ市民は雨の中、同紙の社屋周辺に集まった。弾圧によって「だまされまい」と自由な言論を求める人たちの信念を消し去ることはできない。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B→A)

気候変動は現代の危機を決定づけており、私たちが恐れていた以上の速さで進んでいます。しかし、私たちはこの地球規模の脅威に対し、決して無力なわけではありません。

地球上に、気候変動の壊滅的影響から無傷でいられる場所はありません。気温の上昇は環境破壊や自然災害、異常気象、食料不安と水不足、経済の混乱、紛争やテロを助長しています。海面は上昇を続け、北極氷原は融解し、サンゴ礁は死滅へ向かい、海洋の酸性化が進み、森林は山火事で失われています。

何十億トンもの CO2 が毎年、石炭や石油、ガスの生産により、大気中に放出されています。人間の活動は、記録的な水準の温室効果ガス排出をもたらしており、その勢いはまったく衰える兆しを見せていません。

科学は私たちに、気候変動を疑う余地はないことだけでなく、その流れを断ち切るのも手遅れではないことを教えてくれます。

技術は気候変動を助長してきたものの、新たな効率的技術は、正味の排出量を減らし、世界を浄化することに役立つ可能性があります。現在の排出量の 70%以上について、簡単に利用できる技術的解決策が存在します。

これら拡張可能な解決策を採用すれば、私たち全員がよりクリーンで強靱な世界へと一足飛びで転換を遂げることができます。政府や企業、市民社会、若者、学界が力を合わせれば、苦痛を和らげ、正義が守られ、人間と地球を調和を取り戻す、環境に優しい未来をつくることができます。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B→A)

에너지の供給不安と価格高騰が世界經濟を圧迫している。見過ごせないのは財政や消費者負担に限界がある新興国や途上国への影響だ。

エネルギー危機の長期化が、世界の分断を広げかねないことに警戒が必要だ。

英国はエネルギー価格高騰で影響を受ける家計への支援策を発表した。標準世帯が払う電気・ガス代金を2年間固定する。英メディアによれば、そのために1500億ポンドの財政支出が必要になるという。

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の長期化に伴い、欧州では天然ガスの記録的な高値が続く。

米国でも急速な物価上昇に直面し、日本も高騰への対処は急務だ。

同時に新興国・途上国へ目を向け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パキスタンやバングラデシュでは発電燃料となる液化天然ガス(LNG)の高騰により、予定量の調達が難しくなり、停電時間が拡大している。外貨準備も潤沢でなく、両国は国際通貨基金(IMF)へ融資を求めた。

電力などのインフラが脆弱な途上国では、エネルギー負担の増大による国民生活の圧迫は、社会不安につながりかねない。

日米欧はロシアに厳しく臨むためにも、ロシアや中国との間にいる多くの国々をつなぎとめなければならない。途上国の石油・ガス調達の支援など、供給安定策で日米欧が連携を深める必要がある。エネルギー危機の影響を最小化する取り組みが欠かせない。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한일통역전공 문장구역시험 기출 문제(B→A)

近年の中国軍による韓国周辺の海と空からの圧迫について、文在寅前政権は保秘を理由に積極的に公表しなかった。ところが、国会に提出された国防部資料と合同参謀本部の資料との間に差異が見られたことで、中国軍機による韓国の防空識別圏侵入件数が意図的に減らされ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疑義が提起された。こうした過去の経緯は、尹政権が「前政権の対中姿勢が弱腰だった」と批判する根拠となっている。

尹政権 1 年目は米韓同盟強化が「ワシントン宣言」という形で結実し、米国が提供する拡大抑止力を具体化させることに成功した。しかし、尹大統領が台湾問題に言及したことに中国が反発すると、韓国側が駐韓中国大使を呼び出して抗議するなど、両国政府が非難の応酬を繰り広げる事態に発展した。

かつては、日韓・日米韓の安保協力を進展させる際に、中国との軍事交流も促進させようとする動きがたびたびみられた。しかし、尹政権では日韓・日米韓の安保協力強化に向け一直線で全くブレがない。こうした姿勢は若い世代を中心とする対中感情の悪化を後ろ盾と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が、韓国国民の中で日韓・日米韓関係への極端な傾斜を嫌って、対中感情に揺り戻しが出てくる可能性も否めない。今後尹政権が内政と外交をどう舵取りしていくのかが注目される。